

[사회]

어려운 수리 '나'형 비상

광주 수험생 쏠림 심화속 등급 향상 힘들어질 듯

모의 수능 분석

광주지역 대입 수험생들의 수리 '나'형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7일 한국교육평가연구원 주관으로 치러진 모의수능에서 수리 '나'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돼 일선 학교 진학지도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9면〉

7일 광주시교육청과 입시전문학원 등에 따르면 이번 모의평가의 언어·수리·사회탐구 영역이 2007학년도 수능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리 영역은 '가'형과 '나'형 모두 어렵게 출제됐고, 특히 '나'형의 경우 '가'형의 수확II에 해당하는 문항이 수학I로 교체되면서 이전의 시험보다 어렵게 출제돼 2007학년도 수능에 비해 체감난이도가 훨씬 높았다.

입시전문학원들은 2008학년도 수능에서 이번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나'형이 '가'형보다 비교적 어렵게 출제될 경우, '가'형에서 '나'형으로 전환한 중위권 학생들의 등급 향상이 예년에 비해 힘들 것으로 전망

했다.

유웨이중앙학원은 "중위권(4~5등급) 학생들이 '나'형으로 전환했을 때 한 등급 이상의 등급 향상이 기대됐으나, 2008학년도의 바로미터가 될 이번 모의수능에서 '나'형이 어렵게 출제된 만큼 '가'형에서 '나'형으로 전환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지역 자연계열 수험생 가운데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과 의과계열 등에 진학하려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수험생 상당수는 등급 향상을 노리고 비교적 공부하기 쉬운 수리 '나'형으로 전환한 상태다.

광주지역 고 3 수험생의 수리 '가'형 선택 비율은 지난 3월 40.1%(6천700여 명)였지만 최근 마감한 7월 전국학력평가 응시원서 접수 결과 24%(3천900여 명)로 감소했고, 7천 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자연계열 수험생의 경우 같은 기간 94%에서 55%로 무려 39%포인트 급감했다.

광주지역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사는 "수리 '나'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학생들이 자신에게 유리

한 방향에서 '가'와 '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모의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생과 상담을 실시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시전문학원들은 이번 모의수능의 언어·수리·사회탐구 영역이 만큼 '가'형에서 '나'형으로 전환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등급제가 첫 적용되는 2008학년도 수능에 맞춰 전 영역에 걸쳐 고난도 문항이 골고루 출제돼 변별력을 제고한 나머지 수험생 상당수는 등급 향상을 노리고 비교적 공부하기 쉬운 수리 '나'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특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우병 급식 감시단' 떴다

광주·전남 시민단체 본격 활동 나서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학생건강 보호를 위한 '광우병 급식 감시단'을 구성, 본격 활동에 나섰다.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광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7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학교급식 감시단'을 공식 발표했다.

26개 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앞으로 특수학교를 포함, 학교당 최소한 한 명씩의 감시단원을 선발하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청 등을 상대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한·미 자유무

역협정(FTA) 체결로 6월부터 매달 미국산 쇠고기 5천t씩이 수입될 예정"이라며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1차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어 감시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특히 "광주시와 5개 구청은 미국산 쇠고기와 유전자 조작 식품, 항생제로 뒤범벅이 된 닭고기와 돼지고기, 농약에 젖은 농산물이 아이들을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기 전에 친환경 우수농·축·수산물만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급식조제를 조속히 재정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특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남구 공무원 쓰레기 수거 현장체험.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과 간부직원 등 20여 명이 7일 오전 생활 쓰레기 수거부터 매립장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남구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거 현황·대형청소 업무과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진: 광주시 남구청 제공〉

6월 8일 (음 4월 23일) 전국날씨

△전국날씨

지역	날씨	기온
광주	구름맑음	18~28℃
대전	구름맑음	17~25℃
대구	구름맑음	19~25℃
부산	구름맑음	17~27℃
서울	구름맑음	17~27℃
인천	구름맑음	16~27℃
대전	구름맑음	16~27℃
대구	구름맑음	16~27℃
부산	구름맑음	17~26℃
서울	구름맑음	16~27℃
인천	구름맑음	16~27℃
대전	구름맑음	16~27℃
대구	구름맑음	16~27℃
부산	구름맑음	15~28℃
서울	구름맑음	16~27℃
인천	구름맑음	16~27℃
대전	구름맑음	16~27℃
대구	구름맑음	16~27℃
부산	구름맑음	16~27℃

서울날씨: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남해날씨: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0.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7:13 썰물 < 12:49
 목포 밀물 < 19:35 썰물 < 01:59
 여수 밀물 < 08:28 썰물 < 20:30

△해돋이 05:18 ▲해질 19:45 ▲달돋이 00:29 ▲달질 12:0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7/28	18/28	17/29	19/30	20/25	20/24

초중고생 30% "자살 충동 경험"

가족 갈등·성적 부진 주 원인

초·중·고교생 10명 중 3명은 최근 3년 간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전국 초·중·고교생 1천62명(초 344명·중 391명·고 3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년간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지는 질문에 29.4%가 "그렇다"고 답했다.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중학생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 33.7%, 초등학생 19.9%가 됐다.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응답자(29.4%) 중 12.4%는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가족과의 갈등(44.1%) ▲성적부진(19.5%) ▲이성교제(5.5%) ▲따돌림(4.2%) ▲외모·건강문제(1.6%) ▲학교폭력(1.4%) 등을 꼽았다.

최근 잇따른 연예인들의 자살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3년간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지는 질문에 29.4%가 "그렇다"고 답했다.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중학생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 33.7%, 초등학생 19.9%가 됐다.

〈연남뉴스〉

광주도시공사, 송광사 압류?

末寺 무각사 임대료 체납에 법적 대응

광주 도시공사가 임대료를 체납한 무각사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무각사 본사인 송광사의 재산을 가압류하기로 했다.

도시공사 측은 지난 97년 8월부터 시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 임차해 사용하던 무각사와 임대계약을 최근 해지했다.

무각사는 상무대가 이전한 서구 송촌동 2천264평의 토지 및 건물을 해마다 1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해 왔지만, 시설 확장 등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4억3천800만원의 임대료와 8천400만원의 이자를 갖지 못했다.

또 전시관과 문화관을 기부채납키로 한 약속도 이행치 않고 있다. 도시공사는 또한 지난해 불법 남용을 설치해 분양관까지 뚫었다가 적발돼 사업이 중단됐던 점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밝혔다.

도시공사는 이달 내에 무각사의 본사인 송광사에 대해 체납 사용료 채권확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소유권 이전금지 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무각사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기존 땅과 건물을 비우도록 할 방침이어서 무각사 측의 대응과 앞으로 재계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무각사는 광주 신도심인 상무지구의 중심 사찰로, 3만여 명의 신도와 20여 개의 신도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

市·경찰·자치구 등 합동 단속반 구성

광주시는 7일 성매매 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에 들어가는 등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최신 광주에서 불법 성매매로 인한 청소년 피해 사례가 빈발하는 등 불법 성매매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수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여, 건축·위생·소방 등 관련법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민방위대원·관련 업소 업주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는 한편, 여성단체 등과 함께 성매매 근절 캠페인도 벌일 방침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보건의료노조 26일 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7일 의료법 개정안 폐기 및 2007 산별 협약 요구안 쟁취를 위한 6월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3차 대정부투쟁을 벌이고 정부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요구 수용, 대정부 교섭 추진 및 의료노사정위 구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18일부터 4일간 '돈보의 의료법 폐기 및 산별협약 쟁취'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연남뉴스〉

건치 노인 등 27명 '구강 보건상'

광주 치과의사회 '치아의 날' 행사 다채

'치아의 날'(9일)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시 치과의사회(회장 김낙현)는 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문화회관에서 초청기수 노래·마술 등 '시민 위안잔치'를 연다.

치과의사회는 이날 ▲정수남 씨 등 건치 노인 5명 ▲김지수(오치초 5년) 등 건치 학생(초·중·고) 10명 ▲최수빈(치평초 6년) 모자 등 건치 모자 12명에 대한 '구강 보건상' 시상식도 갖는다.

'구강 보건상'은 광주시 치과의사회가 지난 1959년 처음 시작해 47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행사장에서는 또 초·중학생의 구강 보건 습관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백일장 입상자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전통 침·뜸 공개강좌

공개강좌 · 설명회 6월 8일(금) 오후 2시

- 전문과정 연수 후 중국침구사 및 중국자격증 취득
- 의료개방 및 의료법 개정 대비 침구인 양성과정

주요과목: 체침(전통침), 뜰, 부항, 경혈, 경락, 두침, 미용침법, 비만침법, 피부관리, 약용식물관리, 한방기초 등

※본강의: 매주(금) 14:00~18:00 (총16주) ※광주분원: 지하철 중심사입구역 2번출구

☎ 236-3516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신저인이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정서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을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개인증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기간: 주1회 8주 2개월
- ★교육비: 무료(마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 ★교육장소: 롯데백화점앞 제일B/D 3층
- ★접수방법: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신기한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등학원, 태권도장, 각·예능학원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아유회 ○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제1회 시험 10월 14일 확정 -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취업 가능...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부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를 말한다. WTO가 입국 중 교통사고와 사망률이 각각 1.2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정부는 당사자간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교통사고조사 문화화 선도를 위하여 경찰청 주

검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된다. 현재는 2-5년 이내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된다. 신규 고용정책에 대해 업계와 당국의 관심은 매우 크다. (참고: 사고발생 약21만건, 사상자 약34만명, 이의신청분쟁 매년 수천건씩 증가, 이상 2005년 경찰청 발표)

시험과목으로는 교통관련법규 등

제1회 시험 국가공인자격 평균 60점 이상 합격

법적 공신력 부여, 조사 자료증거 채택,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취업가능

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위배하게 하거나 사고협상에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행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사

4차목 객관식과 실무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학력·경력과 무관하다. 특히, 일반서점에 마땅한 수험교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응시를 위한 교육원의 안내자료와 특별교육까지 준비돼 있어서, 국가공인 제1회라는 시험특성까지 감안하면 시험 첫해인 올해 유례없이 많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탄생될 전망이다.

상담문의 / (062)528-7788

- 자격인증기관: 경찰청
- 시험주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자료제공: 교통사고감정교육원

지리산한약방 (국내산한약재료사용)

다이어트·전립선염·조루·허리디스크

자세한 자료는 www.jir.wo.to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

광주광역시 동구 동성로1길 10 지리산한약방